

美, 기후변화법안 추진 불투명 속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미국에서는 역사적인 건강보험안을 통과시킨 후 남은 과제인 금융개혁안과 이민개혁안 처리에 밀려 기후변화법안의 추진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한 상황이다. 기후변화법안 발의자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그레이엄 의원은 이 법안 추진이 이민법안에 밀릴 경우 법안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 미국 기후법안 통과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의회에서의 기후변화법안 논의가 여전히 미뤄지고 있는 반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관리청(NHTSA)과 환경청은 2010년 4월 1일 미국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기준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근 새로 발표된 보고서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청은 에너지 보존법(EPCA), 에너지 독립 보안법(EISA)에 의거해 2012~2016년 미국 자동차 업체 평균연비 규제(CAFE)기준을 새로 제정하였고, 환경청은 청정공기법안에 의거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새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 도로교통안전관리청이 독자적으로 규정 해오던 평균연비 규제기준을 환경청과 공동작업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제정된 CAFE기준은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제조된 일반 승용차와 경트럭에 해당되는 것으로 1마일당 평균250그램의 CO₂ 배출량으로 35.5mpg까지 연비를 개선토록 하고, 배기가스 배출량은 평균250g/mile까지달성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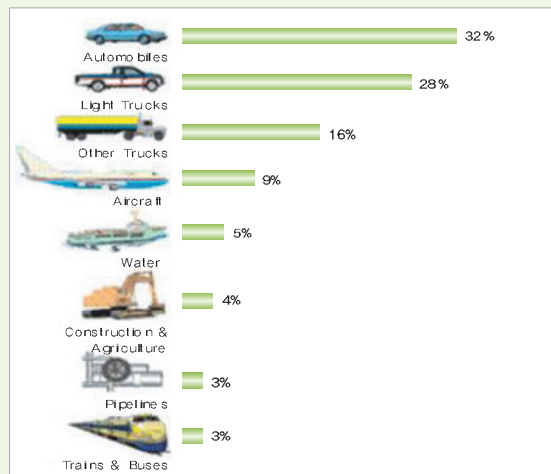
신 CAFE기준에 따른 평균 연비기준(mpg)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승용차	33.3	34.2	34.9	36.2	37.8
경트럭	25.4	26.0	26.6	27.5	28.8
승합차	29.7	30.5	31.3	32.6	34.1

(표 : 미국도로교통안전관리청)

환경청은 이와 같은 탄소배출 규제의 시행으로 9억6천 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18억 배럴의 오일소비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자동차 유형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그림 : 미 에너지 정보국)

이처럼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내연기관의 효율을 대폭 향상시키거나 클린 디젤 및 전기자동차의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현재보다 30~40%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소형경량화, 파워트레인 개선, 혁신적 직접 연료분사 기술 등과 함께 하이브리드 기술이 꼭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 강화와 인센티브, 유가변동, 전지 등 핵심 부품의 기술 발전 및 수급상황, 충전 인프라 구축 속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자동차 연비 및 배기가스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미국 내에서 전기자동차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